

영혼이 없는 시험으로 인재 선발하기



문재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 방승문화진흥회 이사

50세 전후 학부모들은 예비고사와 본고사, 아니면 학력고사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그 당시 유행하던 말이 ‘4당 5락’이었다. 4시간 자면 불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공부할 분량도 많았기 때문이다. 매년 대학입시가 바뀌기는 했지만, 문과생은 예비고사나 수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은 물론이고 사회과목 전부와 과학과목 2과목을 공부해야 했다. 학력고사는 수험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즉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1994년 시작된 수능능력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다. 말 그대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능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학력은 다르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력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학력고사와 수능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 수능에서는 많이 공부한다고, 즉 지식이 늘어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부른 지식은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2010년 수능에서 언어 영역 46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배경도 이와 관련 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다. 한국재무학회가 “금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기술돼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수능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문제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언어이해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문을 읽고 추론하는 능력이므로 주어진 문제 그대로 풀면 된다는 것이다.

수능에서 지식은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무턱대고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소리치는 부모는 먼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학원가에서 유명한 한 언어교사가 텔레비전에 나와 학부모에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부모들은 신문 보라고 하지만, 신문 많이 보면, 특히 사설 많이 읽으면 수능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경향성을 띄는 내용이 많은데, 그러한 선지식이 언어를 푸는 데 방해가 된다는 설명이다.

요즘 수능은 과목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된다. 과거처럼 사회과목과 자연과목을 두루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인문계는 사회탐구 11과목 중 4과목을 시험보고, 그나마 거의 모든 대학이 2과목의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공부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가 국사 성적을 요구하다보니 서울대를 준비하지 않는 대부분 학생은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다. 지식인의 상징인 대학생이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법조인 양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세칭 로스쿨의 차이는 학력고사와 수능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법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사법시험이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이 엄청나다. 시험에 떨어지고나서 보이는 반응은 한결같다. 조금 더 공부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지식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고, 또 실제 된다. 10년 이상 사법시험을 공부한 후 합격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그러나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총정원의 75% 이상이 합격한다. 대상자인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총정원은 2,000명이었으므로 1,500명 이상 법조인이 된다는 뜻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퇴한 학생의 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률은 80%를 넘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렵고, 입학하고 나면 법조인이 되기 쉽다. 2013년 이후 합격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합격률을 더 이상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의 적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을 입학시켰을 뿐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으면 실제로 법조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졸업할 때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다면, 입학할 때 제대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현재 하는 방식은 미국식이다. 미국의 로스쿨 입학시험(LSAT)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반드시 봐야 하는 시험이 법학적성시험, 즉 리트(LEET)다. 리트가 처음 도입되던 때만 해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리트 성적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서 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법학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할 수 없는 현재 입학제도 아래서 리트만큼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도 없다.

리트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으로 구성되었다. 리트 시험 역시 수능처럼 지식을 묻지 않고, 주어진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는 형식이다. 이해력, 논리력, 추론력 등 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능력은 공부한다고 크게 늘지 않는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는 이미 유사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외무고시나 행정고시의 경우 1차 시험에서 지식을 전혀 묻지 않는다.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라는 시험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뽑는데, 이 시험 역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이라는 세 영역을 가지고 공직능력을 평가한다.

어느새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 있는 능력 평가제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능력만 검증하여 선발하는 인재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인물인가? 능력제는 과거 시험이 지나치게 암기식이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을 아는 것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일리 있는 방향 전환이다.

하지만 능력 평가를 통한 인재 선발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능력제는 인생 뒤집기를 어렵게 하고, 평가를 고착화한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거나, 어려서부터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능력평가제는 영혼이 없는 교육이다. 인간본성에 대한 성찰과 사회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언어, 수학, 외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경쟁적으로 뽑고 있는데, 세 과목의 공통점은 도구적 과목이라는 점이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대학 들어가는데 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고위 공무원이 되는데 헌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영혼이 없는 시험제는 영혼이 없는 인재, 영혼이 없는 공무원을 만든다. 능력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